

2017 년 2 월 5 일 “찾아오신 예수님(19) 찾아오신예수님”(요 10:11-21)

[1] 선한 목자의 특징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시고(7 절) 이어서 11 절. 선한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선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헬) 칼로스, '아름답다, 적절하다,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목자 앞에 붙으면 목자라는 위치와 역할에 합당하고 우수하게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용: 선한 재판관은 착한 사람이 재판관 노릇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의를 위해 적절하고 우수하게 법 해석을 하여 판결을 잘 내리는 법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선한 목자이신가요? 선한 목자를 설명하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1, 15 절 -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 사랑

17 절 -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 부요한 생명

이 둘은 반대되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사랑은 그 바치신 목숨을 역설적으로 더 풍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선한 목자와 삯꾼(12 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2] 예언된 선한 목자 vs. 삯꾼 목자

에스겔서 34:1-6 - 거짓 목자들

이들은 양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잡아 먹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양을 맡겼더니 흩어버리고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잃은 양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 16 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살진 꼴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34:14 참고). 그렇다면 겔 34 장에 비추어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양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8 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양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목초를 취하긴 하지만 남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거짓 목자 쪽과 양들 쪽, 양쪽으로부터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둘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짓 목자들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꼴로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삶다운 삶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3] 위협하는 것과 살리는 것

우리는 지난 주에 한 영혼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삶의 존귀함까지 걷어차버리는 바리새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경과 같은 외부적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생명의 꼴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면적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아래를 보면서 생명의 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 사람에게 자기 경멸/비하감이 들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은 생명의 꼴을 먹은 결과는 아닙니다.
- 어떤 사람은 높은 이상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자신은 그 이상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도취입니다. 이것도 좋은 꼴을 먹은 결과는 아닙니다.

- 상처와 질병때문에 종종 자신의 삶이 다 망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 어떤 사람에겐 무절제 성향이, 어떤 사람에겐 독단적 성향이, 어떤 사람에겐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과 중독이, 어떤 사람에겐 특정 이념의 절대화가, ... 이러한 인간의 내적 상태들은 좋은 꼴을 취할 수 없게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주님의 생명의 꼴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찾는가입니다. 그러면 이 꼴의 핵심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 내 놓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더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의심과 내면의 방해꾼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내적 싸움으로 생명의 꼴을 얻어 이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빈번한 오해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면 앞서 언급한 내면의 문제들이 없어지고 깨끗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비록 내 안에 남아 있어도 주님의 사랑의 꼴을 치열하게 얻어서 생명의 힘을 얻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랑의 생명의 부요함이 넘치게 됩니다. 싸울 것이 있어야 부요해집니다!!

**<맺음>**

매일 주님의 사랑의 꼴을 찾고 취하고 있습니까? 그 기회는 하루에도 많은 상황들을 통해 주어집니다. 단지 우리는 그 때마다 꼴을 취해야 한다는 의식이나 바람이 없이 자기 뜻대로 진행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꼴을 취하겠다고 간절히 바라시면 닥친 상황 속에서 영적 눈을 뜨고 주님의 꼴로 나의 영혼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1.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꼴이 과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2. 진정으로 이 꼴(주님의 사랑)은 나의 생명을 부요하고 더 부요하게 하는 실체입니까?
3. 지금 이 꼴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적, 내적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 선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던 말씀을(17 절) 곱씹으면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해 보세요.